

조선후기 검협서사 연구

김유진*

- I. 서론
- II. 검협서사의 존재양상
- III. 검술과 복수의 서사
- IV. 결론

<국문초록>

18세기 후반 여항에 떠돌던 검협 이야기는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검협서사로 정착되었다. 이들 검협서사 작품들은 그 내용에 따라 노승 검협, 소년 검협, 장군 검협, 여성 검협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검협서사를 다른 한문단편들과 구별 짓는 서사 형식으로는 '검술 보이기'와 '검술 겨루기'가 있다. 이러한 검협서사는 검술을 매개로 한 사승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검협서사의 주요 갈등은 복수의 연쇄와 반복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검협서사는 검과 복수의 서사라 칭할 수 있으며, 18세기 후반 검협서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조의 통치 행위와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어: 검협, 검술, 검협서사, 복수, 복벌

I. 서론

한문단편(漢文短篇)은 우리 고전 서사의 보고이다.¹⁾ 한문단편에는 남성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1) '한문단편'이라는 개념은 한문으로 창작된 단편 소설을 칭하는 것이다.(이우성·임형택 편

사대부뿐만 아니라 여성, 중인, 평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한편 이들이 겪게 된 일련의 사건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문단편 작품을 통해 당대의 인물들이 겪었던 일을 추체험하는 한편 조선의 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한문단편 작품들 가운데 일련의 흐름을 보이는 작품군(作品郡)이 있어 주목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검협과 검술에 대한 서사가 그것이다. 검협과 검술에 대한 서사는 여러 한문단편 작품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들 작품은 신비한 검협과 뛰어난 검술, 원수와 의 대결을 서사의 주요 부분으로 삼고 있고, 조선 후기의 특정한 시기에 다수 출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사를 ‘검협서사(劍俠敍事)’라 명명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검협서사는 한문단편 가운데 검술(劍術)에 능한 협객(俠客)을 주인공으로 다룬 작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검협서사는 작품의 중심소재가 검술일 것, 작품의 주요인물이 검객일 것, 그리고 작품의 주요 사건 역시 검협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 한문단편들과 차이를 보인다. 검협서사는 검협과 그와 연관된 사건이 서사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면서 독특한 미감(美感)을 보여준다.

작품	작가	출전
왜첩(倭諜)	신돈복(辛敦復, 1692~1779)	『학산한언(鶴山閑言)』
여협(女俠)	임 매(任 邁, 1711~1779)	『잡기고담(雜記古談)』
검승전(劍僧傳)	신광수(申光洙, 1712~1775)	『석북집(石北集)』 卷16
검녀(劍女)	안석경(安錫敬, 1718~1774)	『삼교별집(雪橋別集)』 『만록(漫錄)』
검객모소전(劍客某小傳)	유한준(兪漢雋, 1732~1811)	『저암집(著菴集)』
이장군전(李將軍傳)	이안중(李安中, 1752~1791)	『해충(海叢)』
오대검협전(五臺劍俠傳)	김조순(金祖淳, 1765~1832)	『고향옥소사(古香屋小史)』
검객설생전(劍客薛生傳)	남주헌(南周獻, 1769~1821)	『의재집』

검협서사 작품의 목록을 이상의 표에 정리하였다. 해당 작품들은 작자가 명시되어 있지만 개별 작품의 정확한 창작 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에 작자의 나이순으로 배열하였다.²⁾ 작자의 생몰년을 고려한다면 이들 작품들이 창작된 시기가 대략 18세기 후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검협서사의 창작과 향유가 해당 시기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하의 작품들은 작자가 다르지만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서사의 내용이 있어 분류 가능하다. 이는 당시 향간에 유행하던 이야기를 공통 소재로 삼아 각자 창작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본고는 검협서사 각 작품들의 내용과 구성을 살핀 후,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서사적 특질을 추출함으로써 검협서사의 형식적 특징과 그것의 의미 지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검협서사류(劍俠敍事類) 작품들은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는 좋으나, 검협서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유형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조선 후기 특정한 시기에 출현한 검협서사를 하나의 서사 양식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검협서사의 존재양상

검협서사는 인물전(人物傳), 즉 전(傳)의 장르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인물전 중에서도 유흥전(遊俠傳)이나 신선전(神仙傳)의 전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검협서사 작품들은 대부분 소설적 경사를 강하게 보여주는 점에서 전 장르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특히 검협서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유흥전이나 신선전은 그 서사의 경계나 의식에 있어서 검협서사의 그것과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유흥전은 조선후기 민간의 유흥승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박지원(朴趾源)의 『광문자전(廣文者傳)』, 이옥(李钰)의 『장복선전

2) 신광수의 『검승전』의 경우 원주(原註)에 ‘丁丑’이라는 연기(年紀)가 있어 1757년에 창작된 것임이 확인되고, 유한준의 『검객모소전』의 경우 제목 아래 ‘丙子’라 되어 있어 1756년에 창작된 것임이 확인된다.

(張福先傳)』, 정래교(鄭來僑)의 『임준원전(林俊元傳)』 등을 들 수 있다. 유협전 속 유협들이 해이해진 공적 질서 대신 시정(市井)의 사적 질서와 윤리를 ‘신의’(信義)를 통해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라면, 검협서사 속 검협들은 검술(劍術)을 통해 사적 정의를 직접 구현하는 인물들이다.³⁾ 한편 신선전(神仙傳)은 사대부들이 자신이 들었던 이인설화(異人說話)를 기록하면서 형성된 작품군으로 소위 ‘신선(神仙)으로 이름난 방외인(方外人)들에 대한 전이다. 허균(許筠)의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박지원(朴趾源)의 『김신선전(金神仙傳)』, 조수삼(趙秀三), 『육서조생전(鬻書曹生傳)』, 김려(金鑣), 『장생전(蔣生傳)』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수련담(修鍊談)이나 예언(豫言談), 시해(屍解談) 등의 신선과 관련된 서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신선전은 기본적으로 사상적으로 작자의 도가적(道家的) 경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선 후기 신선전에 있어서는 작자의 호기(好奇) 취향 혹은 작자의 사회적 처지와 더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⁴⁾

검협서사와 인물전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검협을 입전한 인물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협에 대한 인물전은 희소한데 본고에서는 유본학(柳本學, 1770~1842)⁵⁾의 『김광택전(金光澤傳)』⁶⁾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⁷⁾ 유본학은 김광택을 입전하면서 광택의 아버지 체건(體乾)도 함께 다루었다.

우리나라에 중(縉)은 많으나 도류(道流)가 적다. 수련(修鍊)으로 이름을 얻은 자는 오직 김신선(金神仙) 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를 일컬을 뿐, 오히려 광택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한다. 체건은 검술을 배워서 나라 일

3) 인간 유형으로서 ‘유협’은 조선후기 중소상공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인(市井人)의 의식과 심의(心意)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유협 승상과 유협전의 성립』,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296~299면 참고)

4)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238~251면 참고.

5) 유본학의 생몰년은 정확치 않은데, 김영진,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大東漢文學』 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39면의 추정을 따랐다.

6) 『김광택전』은 유본학의 문집인 『問菴文藁』에 실려 있으나, 해당 문집이 개인소장본이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가원 교주, 『李朝漢文小說選』, 보성문화사, 1978, 387~390면에 실린 자료를 재인용한다. 구두 및 번역은 인용자가 수정한 것이다.

7) 『김광택전』에 대한 연구는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227~231면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김광택전』과 『金風憲傳』, 『李廷楷傳』을 한데 묶어 신선전으로 다루었다. 김체건과 김광택의 행적에 대해서는 허인옥, 『劍仙』金光澤 연구, 『무예연구』 2권 2호, 한국무예학회, 2008에서도 고찰한 바 있다.

에 충성했으니 만약 그의 재주에 걸맞게 쓰였다라면 반드시 변방에서 공을 세울 사람이었다. 광택 또한 능히 그 아버지의 기이한 술법을 전할 수 있었으니 어찌 특별하지 않는가! 또한 그야말로 이른바 ‘검선(劍仙)의 무리가 아니겠는가!’⁸⁾

위의 인용문은 『김광택전』의 뒷부분으로 유본학의 입전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유본학은 우리나라에 불승(佛僧)은 많지만 알려진 ‘도류(道流)’ 즉 도가(道家)적 인물이 적으며 김신선⁹⁾ 정도가 당대에 회자된 도가자류(道家者流)라 하였다. 유본학은 김체건과 김광택을 ‘검선’이라 하여 도가적 인물로 보았다. 유본학의 입전의식은 도가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서얼이라는 자신의 개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광택이 수련했다는 검술보다 각식법(却食法)·경신술(輕身術)·태식법(胎息法) 등 도가 수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의 도가적 지향을 보여주는 점이다. 아울러 기이한 재주와 절개를 가진 위항인(委巷人)의 행적이 민멸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점에서 자신이 서얼 출신으로 느낀 사회적 제약과 그로 인한 좌절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본학에 따르면, 김체건은 일본인들의 신검술(神劍術)을 배우기 위해 왜관(倭館)에 고노(雇奴)로 위장 잠입하여 왜관에 있는 일본인들의 검술 대련을 엿보아 왜검법(倭劍法)을 익혀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체건은 땅에 재를 뿌려놓고는 맨발에 양쪽 엄지발가락만 써서 재를 밟으며 날듯이 검무(劍舞)를 출 때도 발자취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검술을 익힌 자였다.¹⁰⁾ 김광택의 검술 역시 입신의 경지에 올라 ‘만지낙화세(滿地落花勢)’를 취할 때면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¹¹⁾

김광택은 김신선에게 복식법과 경신술을 배웠고 태식에 능하여 중국에는

8) 東方多緇徒，而少道流。以修鍊得名，惟有金神仙一人，世皆稱之，而猶不知有光澤也。體乾能得劍技，忠於國事，若用當其才，則是必立功邊徼之士。光澤又能傳其父之奇術，不亦異哉！又卽劍仙之類乎！尙判官得容，好奇士也，與光澤相識，嘗言其事，故錄之。(柳本學, 『金光澤傳』)

9) 김신선의 본명은 김홍기(金弘基)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는 ‘金洪器’로 되어 있다. 반면, 조희룡의 『김신선전』의 김신선은 김가기(金可基)이나 김홍기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김명호, 『박지원의 금강산 유람과 창작』, 『한국문화』 제76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70~72면 참고)

10) 布灰於地，跣足用兩拇，履灰而舞劍如飛，舞竟，恢無足跡，其體輕如此。(柳本學, 『金光澤傳』)

11) 舞劍入神，作滿地落花勢，藏身不見云。(柳本學, 『金光澤傳』) 여기서 ‘만지낙화세’는 검술의 형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것이 어떤 검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시해(屍解)하였기에 신선자류(神仙者流)로 명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광택전』은 검협의 일화를 담고 있지만 유본학이 지은 다른 작품인 『김풍현전』·『이정해전』과 함께 신선전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¹²⁾ 『김광택전』의 경우 검협이라 부를 만한 인물이 등장하나 검술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검협이나 검술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건이 제시되지 않기에 검협서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1. 『왜첩』·『검승전』·『검객모소전』

① 감사 맹주서(孟耆瑞)는 금강산 유람에서 한 노승을 만났는데 노승이 슬프게 곡을 하며 재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내력을 묻는다. 노승은 본래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서 선발된 자들 중 한 명으로 모두 8명의 왜첩이 금강산으로 간다. 금강산에서 한 선비를 만나 그를 해치려고 했으나 도리어 선비에게 죽임을 당하고 3명만 살아남는다. 선비는 왜첩 3인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검술을 배워 왜군을 방어하는 데 함께 하기를 제안한다. 왜첩 3인은 선비에게 검술을 배웠는데 노승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왜첩이 선비를 암살한다. 노승은 스승을 살해한 왜첩 2인을 모두 죽이고 금강산으로 와서 중이 되었다. 맹주서는 노승에게 검술을 보여주기를 청하고 노승이 이에 응하여 검술을 시연한다. 노승과 작별한 맹주서가 다시 금강산의 중에게 노승의 안부를 물으니 이미 죽었다고 한다. 작자가 『임진록』을 보니 노승의 말이 거짓은 아닌 듯하다.

② 오대산에서 글을 읽던 선비가 노승과 어울리다 노승이 사부님께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내력을 묻는다. 노승은 본래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선발된 특별 부대원으로 모두 3천 명이 함경도 육진까지 진격하였다. 특별부대 3천인은 한 검객을 만나 모두 죽임을 당하고 2명만 살아남는다. 검객은 왜인 2명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자신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왜인 2인은 검객에게 검술을 배우고 함께 팔도를 주유하였는데 한 왜인이 스승인 검객을 살해한다. 노승은 스승을 살해한 왜인을 죽이고 스승과 동료들 모두 잃었다는 상실감에 자살을 결심한다. 동해에 뛰어들었던 노승은 자살에 실패하고는 오대산에 올라 중이 되었다. 선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노승은 다음날 사라졌고 종적을 알 수 없다. 작자는 오대산의 노승을 기남자라 평한다.

12) 박희병, 앞의 책 참고.

③ 영호남 사이에 살던 검객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다가 살해당했는데 그 고을의 현령이 조사하여 검객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처형했다. 떠돌아다녔던 검객은 검술을 배워 3년 만에 통달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에서는 정예용사 9인을 선발해 왜적을 상대하게 하였고 풍신수길 역시 왜인 무사를 보내 맞서게 하였다. 조선의 검객 8인이 죽고 검객 혼자 왜인 무사를 상대로 싸워 겨우 이겼다. 검객은 매년 조선 검객 8인과 왜인 무사 1인의 제사를 지냈다. 검객은 재상의 수하에서 총애를 받았는데 노승 한 명이 재상을 죽이려하자 검객이 그를 죽였다. 노승의 스승이 찾아와 다시 검객과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역시 검객에게 죽임을 당한다. 검객은 재상이 옛날 자신의 아버지 원수를 갚아준 현령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떠난다. 사라진 검객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알 수 없다.

①은 신돈복, 『왜첩』의 서사경개이다. 신돈복의 『왜첩』은 신광수의 『검승전』과 내용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왜첩』은 맹주서(孟冑瑞)가 노승(老僧)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신돈복이 다시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조선에 투입된 왜첩(倭諜) 8인은 금강산에서 한 선비를 만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선비가 은혜를 베풀어 왜첩 3인은 목숨을 건지고 이들 3인은 선비에게 검술을 배운다. 그러나 2인의 왜첩이 스승인 선비를 죽이고 나머지 왜첩 한 명이 두 명을 죽인다. 이 자가 곧 노승이었던 것이다. 맹주서는 노승에게 검술을 청해 감상하고 헤어진다. 맹주서가 다시 금강산의 노승을 찾았지만 이미 죽은 후였다.

②는 신광수, 『검승전』의 서사경개이다. 『검승전』은 한 선비가 오대산의 노승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이다.¹³⁾ 가등청정이 선발해 투입한 왜인 3천 명은 함경도 육진까지 진격했지만 한 검객을 만나 몰살당하고 2인만 살아남는다. 검객은 왜인 2인을 거두어 검술을 가르친다. 그러나 왜인 하나가 검객을 살해하고 다른 왜인은 스승을 죽인 왜인을 죽인다. 자살에 실패한 왜인은 오대산으로 가 중이 되었는데 이 자가 노승인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노승은 다음날 종적을 알 수 없었다.

13) 『검승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인혁, 『〈劍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김경희, 『『검승전(劍僧傳)』에 나타난 인물 관계의 다문화적 고찰』, 『다문화와 평화』 8권 3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정하영, 『〈劍僧傳〉의 人物型과 갈등 양상』, 『古典文學研究』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서신혜, 『고전 서사 속 降倭의 형상화 양상에 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제37집, 동양고전학회, 2018 등이 참조된다.

③은 유한준, 『검객모소전』의 서사경개이다. 『검객모소전』은 주인공인 검객은 어릴 적 장사하던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그 고을의 현령이 검객의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아 처형했다. 이후 검객은 검술을 배워 남을 도왔고 임진왜란 때는 조선의 정예 용사 9인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 왜인 무사와 싸워 이긴다. 훗날 검객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처형한 고을 현령이 재상이 되자 검객은 그의 수하에서 재상의 목숨을 구해주고 떠난다.

유한준의 『검객모소전』은 남주헌(南周獻, 1769~1821)의 『검객설생전』의 서사와 유사한데, 『검객설생전』에는 『검객모소전』에 있는 왜인 무사와 싸워 이긴 내용이 빠지고, 검객이 아버지의 원수를 처단해준 고을 현령을 돕는다는 내용으로 결구되어 서사적 긴밀성이 『검객모소전』에 비해 가다듬어져 있다.¹⁴⁾ 한편 유한준의 『검객모소전』은 『저암집』의 제목이며, 『자저(自著)』에는 그 제목이 『검객기문(劍客記聞)』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같으나 제목이 달라진 것은 유한준이 자신이 들은 것을 기록하는 정도로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유한준에게 이야기해준 누군가가, 검객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처단해준 고을 현령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검객의 검술 실력을 부풀리려는 생각에 검승 계열 설화를 덧붙였고 이를 유한준이 가감 없이 기록하다보니 서사가 다소 부자연스러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왜첩』과 『검승전』은 내용상 거의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으나, 『왜첩』은 야담계 소설로, 『검승전』은 전계 소설로 분류된다.¹⁵⁾ 한편 『검객모소전』은 두 개 이상의 이야기를 결합하여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승전 계열과 유사한 이야기는 작품의 내화(內話)에 해당한다. 『검객모소전』의 외화(外話)는 검객의 아버지가 살해당했는데 고을 현령이 살인자를 처단해주었고 검객은 훗날 재상이 된 고을 현령의 문하에서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이고, 내화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선발한 9명의 무사가 일본인 무사와 싸우다 모두 죽고 검객이 마지막으로 일본인 무사를 무찔렀는데 기실 일본인 무사는 검객의 스승이었기에 검객이 매년 9명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왜첩』·『검승전』의 내용과 『검객모소전』의 내화는 일본인 무사와 조선인 검객의 관계가 역전되었으나

14) 안순태, 「〈劍客薛生傳〉 研究 - 〈劍客記聞〉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29집, 국문학회, 2014.

15) 박희병,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656면.

이야기의 구조는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검협서사를 ‘노승 검협(老僧 劍俠)’ 계열로 명명하고자 한다. 「왜첩」과 「검승」 모두 노승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임진왜란의 와중에 조선에 들어와 귀화한 왜인 검협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당시 조선에 검술에 능한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조선 문인들이 검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는 아마도 임진왜란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왜검에 대한 관심은 앞서 「김광택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숙종 대에 왜검을 배우기 위해 김채권을 왜관으로 잠입시킨 일에서도 확인된다.¹⁷⁾

「왜첩」과 「검승」에는 모두 왜인 검사가 등장하고 이에 맞서는 조선 검협이 등장한다. 「왜첩」에서는 정예병 8인이 조선으로 침투하였고, 「검승전」에서는 이것이 더 부풀려져 3천 명이 조선으로 침투하였는데, 이들 모두 조선 검협에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통해 경험한 일본 검술의 무서운 위력에 대한 정신적 승리 혹은 보상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또한 왜인 검사의 배신으로 조선 검협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임진왜란 때 조선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름의 허구적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유한준의 「검객모소전」의 경우가 사실적이다. 조선에서 정예 용사 9명을 뽑아 일본을 상대하게 하였으나 그 중 8명이 왜인 무사의 ‘초립법(草笠法)’에 목이 달아났고 검객이 마침 왜인 무사의 초립끈을 끊는 바람에 왜인 무사를 무찌를 수 있었다는 내용이 그러하다. 「왜첩」과 「검승전」에서는 모두 왜인 검사인 노승의 스승이 조선 검협으로 제시된 반면, 「검객모소전」에서는 검객의 스승이 초립법을 쓰는 왜인 무사였다는 진술을 통해 왜검을 배워야 했던 저간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16) 안순태, 앞의 논문 외에 「검승전」을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17)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1682) 10월 8일 신사 2번째 기사에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병사 중에 몸이 날래고 힘이 세며 무예에 뛰어난 1인으로서 유혁연(柳赫然)이 재직할 때 동래(東萊)에 내려보내어 왜인의 검술(劍術)을 배웠으며, 근래에는 금위영(禁衛營)으로 소속이 옮겨진 자가 있는데, 이번의 가는 길에 데리고 가서 중국의 기예를 배우게 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라 되어 있고,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1691) 11월 13일 계해 2번째 기사에는 “임금이 일찍이 도감(都監)의 검사(劍士)를 불러 금중(禁中)에 들어오게 하여 그 치고 찌르는 법을 시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두 기록은 「김광택전」의 김채권에 대한 언급과 유사하다.

18) 서신혜, 앞의 논문 참고.

2. 「오대검협전」

④ 어떤 길손이 충청도 부여에 가게 되었다. 산길 바위가 높은 곳에 주인 없는 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 집의 서가엔 검에 대한 책이 많고 벽엔 녹로검 한 쌍이 걸려있었다. 이윽고 주인이 사슴을 짊어지고 나타났는데 형형한 눈에 비범한 얼굴 팔척장신의 젊은이[少年]였다. 젊은이는 조출한 살림에 식사를 내어왔고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청파(靑帕)의 사나이[一士]가 찾아왔고 집주인 젊은이는 황관(黃冠)을 쓰고 보검을 챙겨 나서는 것이었다. 이윽고 황관소년과 청파일사가 돌아와 비탄의 눈물을 흘리고 작별한다. 길손이 묻자 황관소년이 삼장사(三壯士)의 사정을 이야기해주었다. 삼장사는 연경(燕京) 지역에 검술을 배우러 갔다 의형제를 맺었는데 막내가 남방에서 살해당했다. 원수는 해상(海商)으로 전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황관소년과 청파일사가 그를 죽이고 막내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둘째인 청파일사는 백두산의 집으로 돌아갔다. 황관소년은 길손에게 삼장사의 검술은 형가(荊軻)·섭정(攝政)과는 다른 것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해상이 산다는 곳으로 가보니 머리 없는 주검만 남아 있었고 관가(官家)에서는 범인을 찾는다고 하였다. 길손이 다시 부여의 황관소년의 집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황관소년은 강호의 기사(奇士) 부류가 아닌가 한다.

⑤ 풍수설에 빠진 서생(徐生)은 오대산에서 길을 잃었다. 서생은 인가를 찾아 하룻밤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은 검협의 집이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함께 검협은 옷을 갈아입고 비수를 들고 집을 나선다. 검협과 그의 친구는 새벽에 돌아왔고 친구는 다시 떠나갔다. 검협은 서생이 잠든 척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일으켜 친구의 복수를 한 사정을 말해준다. 서생은 검협에게 검술을 보여주길 청하고 검협은 서생에게 검술을 시연한다. 서생은 풍수대신 검협에게 검술을 배우길 청하지만 검협이 거절하고 이튿날 검협의 집을 나선다. 서생은 영남 고을로 가서 검협이 복수했다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작자는 하늘이 아닌 인간의 재주만 믿는 자들을 죄인이라 생각한다.

④는 김재찬, 「부여호사가」의 서사경개이다. 다른 검협서사가 산문인 데 비해 「부여호사가」는 서사시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비록 운문으로 되어 있으나 「부여호사가」의 서사는 신비하고 초월적이며 ‘귀신신이지사(鬼神神異之事)’를 위주로 한 전기와도 다르다.¹⁹⁾ 「부여호사가」는 충청도 부여를 배경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 서사의 전개는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보령소

년사(保寧少年事),²⁰⁾와 거의 유사하다. 『보령소년사』에서 소년의 집 서가에 병서(兵書)가 꽂혀 있었던 반면 『부여호사가』에서 길손이 방문한 소년의 집 서가에는 검서(劍書)가 꽂혀 있다. 『보령소년사』에서 소년이 보여주는 재주는 방안에 뿌려 놓은 기러기 깃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이었으나, 『부여호사가』에서 소년은 중국 연경(燕京)에서 검술을 배운 자로 신묘한 검술을 지닌 자이다. 『보령소년사』에서 검술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홍대용이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홍대용이 검술보다 방법에 관심이 많았던 때문으로 생각된다.²¹⁾

㉓는 김조순, 『오대검협전』의 서사경개이다. 『오대검협전』은 어떤 서생이 만난 오대산의 검협에 대한 이야기이다.²²⁾ 풍수설에 빠진 서생은 오대산에서 길을 잃고 인가를 찾았는데 그곳이 검협의 집이었다. 검협은 서생을 먹이고 재워주는데 한밤중에 검협의 친구가 찾아와 함께 다른 친구의 복수를 하고 돌아온다. 검협은 서생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신기한 검술을 보고 싶어 하는 서생에게 검술을 시연한다. 검협과 헤어진 서생이 검협이 복수했다는 영남 한 고을에 가보았더니 검협의 말대로 급살당한 사람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작품들을 ‘소년 검협’ 계열로 명명하고자 한다. 김재찬의 『부여호사가』와 김조순의 『오대검협전』이 여기에 속하며, 비록 검술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나 홍대용의 『보령소년사』도 이 계열에 속한다. 세 작품 모두 서술적 화자가 만난 인물을 ‘소년(少年)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번역본에 따라서 ‘소년’을 ‘젊은이’나 ‘청년’으로 번역하곤 하나 원문이 ‘소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부여호사가』의 경우 다른 검협서사와 달리 산문이 아니라 시라는 점에서 이채롭지만, 『부여호사가』는 서사시에 해당하며 이야기 역시 여느 산문 못지않게 자세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여호사가』의 부여와 『보령소년사』의 보령은 인접한 지역으로 모두 충청도에 속해있다. 아마도 김재찬과 홍대용이 칭찬한 소년의 사정이 충청 지역에 회자되었던 이야기로 추정된다. 충청

19) 임형택, 『이조시대서사시』 2, 창비, 2013, 466면.

20) 홍대용, 『담헌서』 「내집」 卷4.

21) 『부여호사가』와 『오대검협전』에서 소년의 집 서가에 꽂힌 책이 검서(劍書)로 제시되었으나 『보령소년사』에서는 병법(兵法)에 관련한 책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는 홍대용의 정치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김경희, 『<오대검협전(五臺劍俠傳)>에 나타난 김조순(金祖淳)의 문제의식 고찰』, 『東方學』 3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6 참고.

지역의 검협 이야기는 김조순의 『오대검협전』에서는 강원도 오대산 지역으로 배경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3. 『이장군전』

㉑ 이장군은 중국 연(燕) 지역 출신인데 검술에 능해 명성이 높았다. 명나라 멸망 이후 조선에 들어와 살았는데 평안감사가 그의 용맹을 알아보고 군사의 일을 맡겼다. 이장군이 강가에서 고약한 중을 만나 구타당하고 아내를 희롱당한 유생을 만난다. 이장군이 고약한 중에게 찾아가 싸워 이기고 고약한 중을 죽인다. 다른 중이 평안감영에 찾아와 한 달 후에 동료 중의 복수를 하겠다 통보한다. 평안감사는 충분히 먹지 못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장군에게 먹을 것을 주어 싸움을 대비하게 한다. 이장군과 중은 몽둥이로 대결했으나 승패를 가릴 수 없었다. 이장군과 중은 다시 검으로 대결한다. 이장군과 중이 하늘에서 검술 대결을 펼치고 피, 검, 팔, 다리, 머리가 차례로 떨어지고 결국 이장군이 승리한다. 평안감사의 형이 이장군과 용맹을 겨루고자 한다. 이장군은 감사의 형과 씨름하여 이기고 그를 죽일 뻔 하였으나 돼지를 대신 베어 먹었다. 작자는 이장군이 북벌에 등용되었더라면 북벌을 이루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㉒은 이안중, 『이장군전』의 서사경계이다. 『이장군전』은 『청구야담』의 『투검술이비장참승』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²³⁾ 다만 『이장군전』이 『투검술이비장참승』보다 소설적 경사가 강하게 이루어졌다.²⁴⁾ 이장군은 중국 연나라 지방 출신으로 명나라의 멸망 이후 조선으로 망명한 사람이다. 이장군은 우연히 고약한 중에게 희롱당한 유생을 만나고, 그 유생과 그의 아내 대신 중에게 복수해준다. 이후 이장군은 고약한 중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중과 몽둥이와 검으로 대결하고 승리한다. 이장군은 그와 용맹을 겨루려는 평안감사의 형과 씨름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한다. 이러한 『이장군전』은 남의 아녀자를 희롱하는 악승(惡僧)을 징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중운(1790~1866)의 『각저소년전』과도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²⁵⁾

23) 김승호, 『李安中의 散文에 나타난 小說化 傾向』, 『語文研究』 제3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참고.

24)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257~272면.

25) 김수영, 『〈角紙少年傳〉의 敘事 淵源과 주제의식』, 『古典文學研究』 제4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참고.

본고에서는 이상의 작품들을 ‘장군 검협’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장군전』의 이야기는 『청구야담(靑邱野談)』의 『투검술이비장참승(鬪劍術李裨將斬僧)』과 흡사하다. 『투검술이비장참승』은 『파수편(破睡篇)』에도 전재된 바 있다.²⁶⁾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유한준의 『검객모소전』의 뒷부분은 재상을 살해하려 한 악승(惡僧)을 처단하는 이야기인데, 두 명의 승려가 차례로 재상을 찾아오고 두 번째 승려와는 검술 대결을 벌인다는 점은, 비록 『이장군전』보다 간략하게 처리되긴 하였으나 매우 흡사하다.

4. 「검녀」·「여협」

[7] 단실(丹室) 민백순(閔百順, 1711~1774)이 호남 사람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기이한 선비를 찾던 한 여인이 소용천(蘇凝天, 1704~1760)을 찾아와 의탁하기를 청하여 소용천의 첩이 된다. 여인은 본래 노비였는데 주인댁이 세도가에게 멸문지화를 입게 되자 아씨와 함께 달아났다. 아씨와 여인은 남장을 하고 스승을 찾아 검술을 배워 통달한다. 아씨와 여인은 원수의 집으로 가 검무를 추는 척하다 복수를 완수한다. 아씨는 마음에 맞는 장부를 찾을 수 없고 혼사를 주관해줄 친척도 없으며 자결한다. 아씨는 노비 신분이지만 기이한 뜻과 호걸의 기운을 가진 여인이 자신을 따라 죽을 필요 없다며 기이한 선비를 찾아 혼인하기를 부탁한다. 보검을 팔아 아씨의 장례를 치른 여인이 소용천을 찾아와 의탁했던 것이다. 여인은 소용천이 기대했던 기이한 선비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를 떠나기로 한다. 여인은 이별의 예로 소용천에게 자신의 검술을 시연한다. 다음날 여인은 남장을 하고 떠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서술자는 추종하기를 가리지 않는 학자와 선비들의 태도를 비판한다.

[8]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덕망을 사모한다는 두 젊은이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젊은이들은 정시한에게 술을 청하여 마신다. 밤이 되어 젊은이들이 남은 술을 마시고 검술을 보이는데 잠이 들었던 정시한이 깨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검술을 본 정시한이 태연한 기색을 보이자 젊은이들도 놀란다. 정시한이 젊은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그들도 자신들의 사연을 말해주었다. 원래 두 젊은이는 쌍둥이 자매로 바람난 계모가 친부를 독살하고 도망했기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

26) 『투검술이비장참승』은 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3, 창비, 2018, 144~149면에 『이비장(李裨將)』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려 했던 것이다. 그녀들은 10년 동안 검술을 익혀 경지에 도달하였고 남북으로 원수를 찾아 다녔다. 원수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복수하기 전에 정시한의 집에 들렀던 것이다. 큰일을 앞두고 담을 키우기 위해 술을 청했던 것이었다. 정시한이 사연을 듣고 사내증을 붙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쌍둥이 자매는 이를 거절한다. 아침이 되어 알아보니 객줏집에 강도가 들어 두 남녀를 찢러 죽이고 머리를 잘라 갔다고 한다. 서술자는 쌍둥이 자매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극한 호심에 원수를 갚은 것이기에 살인자나 도적이 아니라 기특하다 평한다.

마지막은 ‘여성 검협’ 계열로 본고에서는 「검녀」와 「여협」을 살펴본다. [7]은 안석경, 「검녀」의 서사경개이다. 「검녀」는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검협서사와 차이를 보인다.²⁷⁾ 검녀는 원래 노비로 주인댁이 멸문되자 살아남은 주인댁 아씨와 함께 남장을 하고 검술을 배워 원수를 갚는다. 원수를 갚은 주인댁 아씨는 마음에 맞는 장부를 만나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결하며 검녀에게 기이한 선비를 만나 결혼하라 유언을 남긴다. 검녀는 이에 소용천을 찾아와 스스로 혼인을 청한 것이다. 검녀는 3년 가까이 소용천과 살았지만 그가 기이한 선비가 아니라 과한 명성을 얻은 사람일 뿐임을 깨닫고 자신의 검술을 보여준 후 다시 남장을 하고 깊은 산으로 떠나고 그녀의 행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

[8]은 임매, 「여협」의 서사경개이다. 「여협」은 『잡기고담』(雜記古談, 일명: 蘭室漫筆)에 실려 있다. 「검녀」에서는 주인아씨와 여종이 여성 검협으로 등장하나 「여협」에서는 쌍둥이 자매가 검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검녀」에서 소용천은 검녀의 검술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협」에서 정시한은 여협의 검술을 목격하고도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측면에서도 「검녀」에서는 주인댁의 멸문지화(滅門之禍)와 그에 대한 복수, 여종의 기사(奇士)에로의 의탁과 떠남이 주된 내용이나, 「여협」에서는 계모의 친부 살해와 효녀인 쌍둥이 자매의 복수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검녀」와 「여협」은 이른바 ‘강상효녀(江上孝女)’ 계열 서사들과 구조와 내

27) 「검녀」에 대한 선행연구는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劍女> 研究-女俠故事 傳統의 繼承과 變容』, 『韓國漢文學研究』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이경미, 『朝鮮後期 漢文小說 『劍女』를 통해 본 韓·中 女俠의 세계』, 『石堂論叢』 제40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8; 김수영, 『체제 밖으로 나가기와 체제 속으로 들어오기』, 『제37차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등이 참조된다.

용이 상당히 흡사하다. 강상효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전(傳)으로, 이홍덕(李弘愐, 1667~1721)이 1711년 창작한 『강상열효녀전(江上烈孝女傳)』이다. 같은 전 작품으로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강상효녀전(江上孝女傳)』도 역시 이홍덕의 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記事)로는 심낙수(沈樂洙, 1739~1799)의 『서이여아복수사(書二女兒復讐事)』, 유만주(兪晩注, 1755~1788)의 『기이검협사(記二劍姬事)』가 있고, 서사시로는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강상효녀가(江上孝女歌)』와 성해응의 『강상효녀편(江上孝女篇)』 등이 있다.²⁸⁾ 이상의 강상효녀 서사 가운데 소설적 형상화가 뛰어난 작품은 임매의 『여협』과 안석경의 『검녀』인데, 『여협』이 강상효녀 서사의 전형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인 반면, 『검녀』는 인물과 사건의 변개가 매우 커져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III. 검술과 복수의 서사

검협서사의 특징은 말 그대로 그것이 ‘검술의 서사’라는 점에 있다. 앞서 제시한 검협서사 작품들은 대부분 ‘한문단편’ 혹은 ‘한문단편소설’로 언급될 법한 것들이다.²⁹⁾ 노승 검협, 소년 검협, 장군 검협, 여성 검협 등의 검협서사는 여타의 전(傳)이나, 필기류(筆記類) 기사(記事)보다 강한 소설적 경사를 보여준다. 이는 향간에 떠돌던 이야기에서 검협이라는 인물과 검술이라는 소재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협서사는 자체로 독특한 서사형식과 미감(美感)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를 묘사, 인물, 갈등, 지향점, 문체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검협서사는 검술 장면의 묘사에 있어서 상당한 구체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검술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작품마다 비슷하게 제시된다는 점은 검협서사가 일종의 서사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검협서사의 서사

28) 강혜규, 앞의 논문, 450~451면; 손혜리, 『18세기 서사양식의 교섭양상에 대하여-‘강상효녀’를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0집, 한국한문학회, 2007, 428~450면 참고.

29) 한문단편은 한문으로 된 단편서사-소설을 말한다. 한문단편은 기본적으로 실사에 바탕을 둔 사실적 서사로 비사실적 요소와 혼재된 실사와 허구 사이에 존재한다.(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540~541면 참고)

형식은 ‘검술 보이기’와 ‘검술 겨루기’로 드러난다. 다음은 검술 보이기이다.

㉠ 노승은 소매 속에서 공처럼 둥그런 물건 두 개를 꺼내는데 끈으로 팽팽 묶어 놓은 것이었다. 끈을 풀어내니 두 개의 쇠덩이가 나왔다. 주먹처럼 말아 놓은 것을 손으로 평평하게 펴자 몇 척쯤 되는 칼날이었다. 검광이 가을 물의 느낌이었으며, 종이처럼 말고 펼 수 있는 것이었다. 노승은 그 쌍검을 들고 일어나 춤을 추는데 처음에는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작이 사뭇 느렸다. 곧 점차 빨라지다가 싫더니 확확 바람이 일었다. 한참 지나자 솟구쳐 날아서 몸이 공중에서 맴돌았다. 이윽고 은 향아리 하나가 거대한 잣나무의 층층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번갯불이 치는 듯 홀연 커졌다 작아졌다 하여 바위에 빛이 반사되는데 잣나무 잎은 온통 서릿발처럼 분분히 날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³⁰⁾

㉡ 여인은 보파리에서 털로 만든 푸른색 두건, 붉은색 비단 옷, 수놓은 노란색 띠, 하얀 비단 바지, 무늬 있는 무소 가죽으로 만든 신, 새하얀 빛이 감도는 연화검 한 쌍을 꺼냈다. 여인은 치마저고리를 모두 벗더니 옷을 갈아입고 잘 동여맨 뒤 두 번 절하고 일어섰다. 여인은 날랜 제비처럼 가벼이 몸을 움직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여인은 몸을 날려 한 쌍의 검을 겨드랑이에 쥘었다. 처음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꽃이 떨어지고 얼음이 부서지는 듯했다. 중간에는 하나로 모이면서 구름이 흐르고 번개가 치는 듯했다. 마지막에는 높이 날아올라 고니가 날고 학이 나는 듯했다. 이윽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검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줄기 하얀 빛이 동에서 번쩍이다 서에서 번쩍이고, 남에서 번쩍이다 북에서 번쩍였다. 확확 바람이 일며 차가운 기운에 하늘이 얼어붙는 듯했다. 짧은 기합 소리와 함께 마당의 나무가 땡깡 잘리더니 검이 땅으로 던져지고 사람도 내려섰다. 남은 빛과 기운이 싸늘하게 사람을 엄습했다.³¹⁾

30) 僧袖出兩物，團圓如毬，用繩纏縛。去繩訖，見兩個鐵塊，卷帖如拳，以手平展則數尺霜刃。光如秋水，而卷舒如紙。僧把雙劍起舞，始也，顛動低昂頗遲，俄而，漸見迅疾輝，霍風生。久之，騰湧飄浮，立在空中，盤旋去來，已而，只見一個銀瓮，出沒於栢樹層葉之間。掣電閃爍，條長條短，曩襲岩壑，遍是霜雪，栢葉紛紛，飛落如雨。(신돈복, 『예집』, 번역은 위의 책, 415~420면 참고)

31) 發其裝，青氈巾·紅錦衣·黃繡帶·白綾袴·斑犀靴，皎然蓮花劍一雙，渾脫女襦裳，而改服單束，再拜而起，翩然若輕燕，而瞥然騰劍，竦身挾之。始也四撒，花香冰碎，中焉團結，雪滾電鏖，未乃翱翔鶴與鶴翥，既不可見人，而亦無由見劍。祇見一段白光，撞東觸西，閃南掣北，而颯颯生風，寒色凍天，俄叫一聲，杳然割庭柯，而劍擲人立，餘光剩氣，冷遍於人。(안석경, 『검녀』, 번역은 박희병·정길수 편역, 『기인과 협객』, 돌베개, 2010, 47~53면 참고)

③ 청년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작은 고리를 가지고 나와 그 뚜껑을 열었다. 고리에는 닭털이 가득 들어 있었다. 청년은 검을 휘두르며 닭털 몽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어느덧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줄기 흰 기운이 뻗어 나와 방 안을 빙 에워싸더니, 닭털이 모두 팔랑팔랑 춤을 추며 어지러이 벽 위에 난무했다. 등잔의 파란 불빛이 그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했고, 차가운 빛과 싸늘한 기운에 모발이 곤두섰다. 서생은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며 감히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쟁!” 하는 소리가 났다. 청년은 검을 바다에 던진 후 웃고 있었다.³²⁾

①은 「왜첩」, ②는 「검녀」, ③은 「오대검협전」의 ‘검술 보이기’ 장면이다. ①에서 신돈복이 묘사하는 노승의 검은 연검(軟劍) 혹은 요대검(腰帶劍)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승은 이것으로 검무(劍舞)를 시연하고 있다. 노승이 검무를 마치자 잣나무 잎이 모두 잘렸다는 서술에서 그의 검술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 것인지 측량케 한다. ②에서 검녀는 치마 대신 바지를 입는다. 이전의 남복(男服)이 여성임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소옹천 앞에서의 남복은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 볼 수 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남복을 한 검녀는 공중에 솟구쳐 사방으로 검을 휘두르고 끝내 마당의 나무를 자른다. ③의 검협은 방안에 고리에 든 닭털을 흩어 놓고 화려한 검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검협서사에서는 검협의 검술이 간략히 처리되기 보다는 생동감 있게 묘사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배가시킨다. 다른 서사체 산문에서는 검술이 언급되지 않거나 언급되더라도 자세한 묘사가 생략되곤 한다. 반면 검협서사에서는 이처럼 ‘검술 보이기’ 형식을 통해 작품의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검술 보이기’와 마찬가지로 ‘검술 겨루기’ 역시 구체적 장면 묘사의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특유의 미감을 보여준다.

① 연해의 아홉 고을을 거쳐 북으로 철령(鐵嶺)을 넘어 함경도의 남쪽을 짓밟고 육진(六鎭)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도록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데 해안에 1백여 길이나 되는 바위가 우뚝 솟아있었습니다. 그 위로 웬 사람이 도롱이에 삿

32) 沈吟而起，復至閨藏中，取一籠抖之，滿籠皆鷄翎也。少年乃運劍匝圍推邊，已而不見，只一道白氣，圍亘室中，鷄翎皆肅肅自舞，亂飄壁上，燈穗青燐，隨而上下，寒光冽氣，毛髮爲豎。生情戰栗，不敢正坐。俄而鏗然一響，少年投劍而笑。(김조순, 『오대검협전』, 번역은 위의 책, 105~114면 참고)

것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두들 쳐다보고 고향을 지르며 총을 마구 쏘아 댔으나 그 사람은 태연히 앉아 칼을 휘두르니 총알이 분분히 떨어집니다. 왜인들은 분노하여 에워싸고 떠나지 않았지요. 이윽고 그 사람이 몸을 솟구쳐 새처럼 날아오더니, 칼을 번쩍이며 못사람들의 어깨를 짓밟고 다니는 것이 풀을 꺾듯 했지요. 이에 특별부대 3천 명 중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는 이 사람과 다른 한 왜인뿐이었습니다.³³⁾

② 왜인 무사는 ‘초립밥’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초립법은 검술에서도 특이한 검법이였다. 상대와 맞서 싸우다가 쓰고 있던 초립을 움직이면 여덟 검객의 머리가 차례차례 잘리는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검객의 차례였다. 검객은 생각했다. ‘왜인 무사는 천하의 이인이니 당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싸울 수밖에 없다!’ 검객은 몸을 날려 곧장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허공에서 내려와 무사 가까이로 가더니 홀연 무사의 초립 끈을 끊었다. 무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검객의 검이 무사의 머리 위에서 번뜩였다.³⁴⁾

③ 각기 검을 빼 들고 서서 한참 마주보았다. 중이 앞으로 나오자 장군도 앞으로 나왔다. 장군이 검을 휘두르자 중이 맞받아 싸웠다. 한쪽의 검술이 서리 같다면 다른 한쪽은 눈과 같고, 한쪽의 검술이 별이 흐르는 것 같다면 다른 한쪽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얼마 뒤 장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중 혼자 앞으로 나왔다. 뒤로 물러났다. 하는 모습만 보였다. 잠시 후에는 중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중의 검만 보였다. 또 잠시 후에는 검도 보이지 않고 씩씩 바람 소리만 들리며 싸울 한 기운이 하늘에 가득했다. 구경하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때때로 구름 속에서 칼 부딪치는 소리만 들려왔다.³⁵⁾

33) 并海九郡，而北踰鐵嶺，關闕南，深入六鎮，弗見人，海有石隄立百餘。尋見一人兩笠衣，坐其上。別部謀而仰發銃，其人劍揮之，丸輒紛紛雨落。倭益忿環不去。已而，其人騰而鳥下，飛劍往來，人肩如草薙。於是，倭能劍者三千，不殺獨老僧若一倭已。(신광수, 『검승전』, 번역은 임형택, 앞의 책, 2012, 410~414면 참고)

34) 倭劍士其術用草笠，草笠之法，蓋劍法而別法也。與之戰，輒草笠動而以次斷八劍士頭。次及客。客念，‘倭劍士天下異人不可當。然業已當戰！’乃奮身直上，從空而下，倭劍士方接，忽纒絕。倭劍士目不及視，手不及發，劍已下頭上矣。(유한준, 『검객모소전』, 번역은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2010, 193~196면 참고)

35) 各抽劍立，相視良久，僧進，將軍隨之，將軍舞，僧迎之，來者如霜，去者如雪，來者星流，去者雲逐。頃之，不見將軍，獨僧進退。又頃之，不見僧，獨劍。又頃之，劍亦不見，但風蕭蕭，寒氣滿空，觀者無所見，時從烟雲中，獨聞劍擊聲。(이안중, 『이장군전』, 번역은 위의 책, 93~102면 참고)

①은 「검승전」, ②는 「검객모소전」, ③은 「이장군전」이다. ①에서 노승의 스승인 조선 검협은 총알을 검으로 튕겨내는가 하면 날아올라 왜인들의 어깨를 밟으며 풀을 깎듯 3천 명의 왜인 부대를 전멸시키고 있다. ②는 검객과 왜인 무사의 대결 장면이다. 검객이 왜인 무사의 초립법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운과 기지 덕분이었다. 후술되듯 왜인 무사는 기실 검객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③에서 이장군과 악승의 대결은 몽둥이로 시작했으나 승부를 보지 못하자 검술 대결로 이어진다. 이장군과 악승의 검술 대결이 긴장감 있게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검술 보이기’와 ‘검술 겨루기’라는 검협서사의 서사형식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검협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검술이라는 소재는 기실 임진왜란 이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이 되었다. 물론 조선에 검술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지만 대중의 관심이 검술에 쏠리게 된 것은 임진왜란의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18세기는 이미 임진왜란이 끝난 지 꽤 시간이 흘렀던 때인데다, 병자호란 이후로 검술은 전술적으로도 크게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심하전투에 파병을 요청했던 명나라도 나선정벌에 파병을 요청했던 청나라도 조선에 원했던 것은 대부분 조총수(鳥銃手)의 파병이었다.³⁶⁾

그렇다면 검술과 검협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문학적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이는 중국소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이장군전」에 보이는 “장군은 몹시 화가 나서 옷통을 확 찢더니 곧장 그 배로 달려가 중을 꾸짖었다”라는 구절이나 “장군은 더욱 분노하여 노를 버리고 1백 걸음을 물러났다가 힘차게 앞으로 달음박질하며 주먹으로 중을 쳤다. 중의 팔이 부러졌다. 중은 이제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공격해 왔다. 장군은 발로 차서 중을 고꾸라뜨렸다. 쓰러진 중의 가슴팍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그 머리를 부수니 두개골이 비처럼 날아 흩어졌다”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로테스크한 미감은 중국 사대기서 『수호전』의 영향이 감지되기 때문이다.³⁷⁾ 이는 김조순이 자술한 바와 같이 이들 작자가 중국소설을

36) 조선군의 해외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에 자세하다.

37) 검협서사의 작자들이 『수호전』을 비롯한 중국소설을 얼마나 읽었는지 밝히는 것은 아직 증거가 부족하여 직접적으로 논증하기 어렵다. 다만 유만주, 『홍영』에 『수호전』을 비롯한 중국소설을 읽은 기록이 있어 저간의 사정을 추론해 볼 수 있다.(김하라, 『유만주의 『수호전』 독법』,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윤인(閔人: 김조순의 호)은 말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태사공의 『자객열전』을 몹시 좋아해서 그 글을 읽다가 종종 밥 먹는 것조차 잊을 지경이었다.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천하에 이보다 기이한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다가 당나라의 소설인 『위십일랑전』이나 『홍선전』 같은 작품을 읽고는 또 한 번 망연자실했다. 비유컨대 형가와 섭정 같은 분들은 맹호가 산을 내려오면 시종 사람의 눈과 귀를 압도함과 같으니, 이분들을 대하면 불끈 용맹한 기운을 내게 된다. 반면 위십일랑이나 홍선 같은 이들은 신령스러운 용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때때로 비늘과 발톱을 보여줌과 같으니, 그녀들의 신비한 변화는 거의 헤아릴 수 없다. 위십일랑이나 홍선 쪽이 한 수 위인 듯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까닭에 그 행적도 다를 뿐이다.³⁸⁾

김조순의 『오대검협전』은 김조순의 『풍고집(楓臯集)』이 아니라, 김려(金鑣, 1766~1822)의 『담정총서(澗庭叢書)』에 『고향옥소사(古香屋小史)』로 수습되어 전해지게 되었다. 김조순의 『풍고집』은 후손들이 산삭하여 문제가 될 만한 글을 빼어버렸기에 『오대검협전』과 같은 작품은 문집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조순은 김려와 교유하였으며, 함께 『우초신지(虞初新志)』를 읽고 50여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³⁹⁾ 『오대검협전』의 말미에 언급된 『위십일랑전』과 『홍선전』은 모두 중국소설로 여성 협객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이다. 『홍선전』은 당나라 원교(袁孝)가 창작한 것이 맞으나 『위십일랑전』은 당나라 소설이 아니라 명나라 호여가(好汝嘉)가 창작한 소설이다. 김조순은 사마천의 『자객열전』보다 『홍선전』과 『위십일랑전』의 신비한 변화가 한 수 위라 말하고 있다. 전보다 소설을 고평한 것이다. 홍대용의 『보령소년사』, 김재찬의 『부여호사가』, 그리고 김조순의 『오대검협전』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소년 검협의 이야기는 당대에 유행하던 것임이 분명한데 김조순의 손을 거쳐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참고) 특히 『이장군전』의 작자인 이안중과 유만주는 문학적으로 서로 교유한 바 있어 주목된다.(김하라, 『유만주가 만난 이안중 - 1786년 9월 남산의 문학청년들』, 『한국한문학회연구』 제69집, 한국한문학회, 2018 참고)

38) 閔人曰: “余童子時, 愛太史公『刺客傳』, 讀之往往忘食, 以爲: ‘天下之奇, 無過於是.’ 『紅線』諸傳, 又茫然自失. 譬之, 荊軻諸公, 如猛虎下山, 終始具塗人耳目, 見之悍然增氣而已, 若臺娘紅線之類, 如神龍入雲, 時露鱗爪, 其神變殆不可測, 似乎勝之, 所處異而所用殊也.(김조순, 『오대검협전』)

39) 김려, 『제고향옥소사권후(題古香屋小史卷後)』, 『담정총서』 권10.

면서 검협과 검술의 내용이 훨씬 자세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점이 중국소설의 영향으로 검협서사의 형식이 한층 소설화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검협서사에 설정된 인물 관계에는 특징이 있다. 특히 검협과 검술을 매개로 한 ‘사승(師承)의 관계’가 제시된다는 점이다. 『왜첩』과 『검승전』에서의 사승관계는 조선 검협과 왜인 무사들 간에 맺어지는데, 국가 간 적대 관계와 개인 간 사승 관계가 중첩되면서 사건은 비극으로 귀결된다.⁴⁰⁾

① “너희들은 비록 너희 나라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를 엿보고자 했으나 지모가 모자라고 기술도 별것이 없으니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이미 나를 따르기로 하늘에 맹서했는데 진심이나 거짓이냐는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내 옹당 검술을 가르쳐서 왜군이 침공하는 날에 너희를 거느리고 내 의병을 일으켜서 조령으로 가서 지킬 생각이다. 적군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면 이국에서 공을 세우는 셈이다. 너희들 또한 싫어할 것이 있겠느냐?” 세 사람은 절하고 사례했습니다. 그로부터 셋이 함께 검술을 배워 그의 기술을 거의 다 익히게 되었지요. 세 사람은 선비를 받들어 섬기길 열심히 했고 선비도 세 사람을 믿고 사랑해 마지않았습니다.⁴¹⁾

② 검객은 칼을 집고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 3천 명에서 죽이지 않은 놈은 둘뿐이다. 너희 둘도 왜놈으로 나의 원수지만 역시 사람이라, 나는 차마 다 죽이지는 못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죽고 살고 오직 명대로 따르겠나이다.” 살아남은 둘은 드디어 그 검객을 사부로 받들게 되었지요. 함께 지낸 몇 해 사이에 그의 검술을 다 배워 익혔더랍니다. 그리하여 사제 세 사람이 팔도의 명산을 주유하는데 매양 어느 산에 당도하면 초암을 짓고 1년이나 반년을 지내다가는 버리고 다른 데로 가곤 하였지요. 혹 가을이 깊어 달이 밝을 적이면 높은 산마루에 올라서 검무를 신명나게 춥니다. 한참 그러다가 바위를 일격에 깨트리고 장승 한 그루를 베어 노기를 푼 다음에야 그만둡니다. 그리고 검사는 자기 성명을 끝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⁴²⁾

40) 『검승전』의 인물형과 이들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정하영, 『<劍僧傳>의 人物型과 갈등양상』,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105~116면 참고.

41) “汝輩，雖爲倭所使，欲規我國，智慮淺短，技術甚疎，其何能爲？今旣盟天歸服，心之誠僞，吾足洞知，吾當教以劔法，若倭兵來，則吾可領汝輩起兵，往守鳥嶺，足遏賊兵，異國附勳，汝亦何厭？”三人拜，時遂共受劔術，旣盡其能，服事甚勤，士人甚信愛。(신돈복, 『왜첩』)

42) 其人遂按劔而噓，“若屬三千，其不殺若二人已。若雖夷而讐我，亦人已，吾不忍盡之矣。若能順

③ 검객은 해마다 왜인 무사와 싸웠던 날이 돌아오면 밤에 제사상을 차려 죽은 검객들의 제사를 지냈다. 항상 술잔을 아홉 개 놓았는데, 좌우로 여덟 개를 늘어놓고 가운데 한 개를 두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검객은 말했다. “여덟 검객은 내 친구였고, 왜인 무사는 내 스승이었소.”⁴³⁾

①은 「왜첩」, ②는 「검승전」, ③은 「검객모소전」이다. ①은 검사(劍士)가 왜인 무사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며 한 말이다. 검사는 왜인 무사들의 목숨을 살려주며 자신을 따르기로 맹세한 이상 이들을 가르쳐 의병과 더불어 왜군을 막겠다고 한다. 하지만 훗날 귀의한 3인 중 2인이 검사를 원수라 하며 죽인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비극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이들의 관계는 사제로 결속되었다 할 수 있다. ②에서 언급한 왜군 3천 명은 임진왜란 당시 귀화한 항왜인(降倭人) 김충선(金忠善, 일본명: 沙也加)을 염두에 둔 서술이라 볼 수 있다. 그러기에 ①에서 검사가 왜인을 가르쳐 왜군을 막겠다 한 말이 전혀 가당치 않은 것은 아니다. ②에서 검객은 오랑캐인 왜인이 자신에게 원수지만 오랑캐도 인간인지라 모두 죽일 수는 없다며 순종을 요구한다. 살아남은 두 명의 왜인은 검객을 사부로 받들어 사승 관계를 맺는다. 이들이 함께 주유하는 모습은 껍이나 낭만적인데 그 이면에는 울울한 심경이 깔려 있다. 이들은 산천을 돌아다니며 검무를 추는가 하면 바위를 깨기도 하고, 장송을 자르기도 하며 마음 속 노기를 풀어낸다. ②에서도 이들의 사제 관계는 겉으로는 단단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파국으로 귀결된다. ③에는 ①과 ②에 보이는 조선 검협과 왜인 무사의 사승 관계가 역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①과 ②가 정신적 승리의 관점에서 왜인 무사가 조선 검협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설정되었다면 ③에서는 오히려 조선 검객이 왜인 무사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으로 설정되어 보다 실제 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녀」에서 사승관계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아씨와 검녀가 어떤 스

我乎?”曰:“死生唯命!”二人遂從其人。山中數年,盡得其術。師弟子三人,徧游八道名山,每至一山,結茅住一年或半年,輒棄去。秋深月盛,或登絕頂,舞劍器淋漓,移時,擊石斷高松,怒洩乃止。然姓名不肯言。(신광수, 「검승전」)

43) 每戰日,夜設祭,祭諸劍士。設酒九卮,左右八卮,中央一卮。或問其故,曰:“八劍士我友也,倭劍士我師也。”(유한준, 「검객모소전」)

승에게 검술을 배웠다는 사실만이 제시되어 있다.⁴⁴⁾ 하지만 기이한 선비를 찾아 소옹천에게 귀의했지만, 소옹천은 결국 검녀의 성에 차지 않는 허명(虛名)의 선비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검녀는 미련 없이 소옹천을 떠난다. 이러한 검녀의 모습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여성의 주체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⁴⁵⁾ 『검객모소전』의 검객 역시 스승을 찾아 검술을 배운다. 『오대검협전』에서 검협과 그 친구는 같은 스승 문하에서 검술을 배웠고 다른 한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부여호사가』에서 의형제를 맺은 삼장사(三壯士)들은 중국 연경 지역에 가서 검술을 배웠다고 하였다.

다만 『이장군전』에서 이장군은 이미 검술을 통달한 상태로 제시되고 있기에 사승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나 검술에도 배움의 단계가 있고 수련의 정도에 따라 그 기예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인식은 반영되어 있다. 한편 『검객모소전』과 『이장군전』이 공유하는 화소로 검술의 단계에 대한 진술이 보인다. 『검객모소전』에서 검술에는 12단계가 있는데 중이 그 가운데 한 가지 술법을 알지 못했기에 검객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진술⁴⁶⁾과 『이장군전』에서 검술에는 12곡(曲)이 있는데 중은 3단계를 미치지 못해서 이장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술⁴⁷⁾은 검술이 자득(自得)의 결과물이 아닌 학검(學劍)을 통해야만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종합하면 검협서사에서 인물 간의 관계는 사승 관계를 한 축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무예로서 검술이 자득이 아닌 전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이점은 『김광택전』에서 김광택이 왜검을 습득한 아버지 김채건의 검술과 김신선의 복식법과 경신술을 배웠다는 것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승의 인간관계는 검협서사에서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검협서사에서 주요 갈등의 테마는 복수(復讐)이며, 복수는 서로 물고 물리는 반복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용이하다. 『왜첩』과 『검승전』이 공유하

44) 반면 『여협』에는 경주의 검객에게 10년 동안 칼 쓰는 법을 배웠다는 언급이 나온다.

45) 중국 여협서사에 보이는 협녀의 형상과 『검녀』에 재현된 협녀의 형상 사이의 전통의 계승적 측면과 변용의 의미는 강혜규, 앞의 논문, 457~473면 참고.

46) 劍有十二術, 其一術僧不知也. 然善劍也.(유한준, 『검객모소전』)

47) 但吾能舞十二曲, 僧不及三, 所以見殺於我也.(이안중, 『이장군전』)

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적대적 관계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은원(恩怨)이었다.

㉠ 어느 날 셋은 함께 외진 암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선비가 뜻밖에 살해당해 유혈이 방에 낭자했습니다. 노승은 이 정경을 목도하고 깜짝 놀라 두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한 짓이냐?” 그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이를 받들어 섬겨서 그 검술을 배웠으나, 같이 건너왔던 여덟 사람은 의리가 형제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모두 이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 우리 둘이 남았을 뿐이니 이이는 우리의 원수다. 원수를 잠시라도 잊어서 되겠느냐? 전부터 제거할 뜻이 있었으되 틈을 타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다행히 기회를 얻었는데 왜 곧장 죽이지 않겠느냐?” 노승은 저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재생의 은혜를 입었거니와, 맹서하여 사제 간이 되지 않았느냐. 은혜와 의리가 이미 깊은 데다 부자와 다름없이 정이 들었거늘 어찌 다시 원수로 치부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발을 구르고 통곡한 끝에 두 사람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⁴⁸⁾

㉡ 그 후 10여 년이 흘러간 어느 날 사부가 밖에 나가려고 몸을 굽혀 들메끈을 매는데 다른 한 왜인이 별안간 뒤에서 칼을 뽑아 사부의 목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노승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저이는 우리 원수가 아니냐. 오늘에야 원수를 갚았다. 우리 둘이 빠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사부님이 칼을 맞은 것을 목격하고 즉시 칼을 뽑아 그 자리에서 놈의 머리를 잘라 버렸죠. 이 노승도 물론 그놈과 마찬가지로 왜인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사부를 섬긴 지 몇 십 년이 지났으되 그자가 밤낮으로 해칠 마음을 품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⁴⁹⁾

㉢ 「왜첩」에서 왜인(倭人)은 조선 검사(劍士)를 원수라며 죽였다. 형제와

48) 一日, 三人同宿於一孤菴, 朝起, 士人忽爲人所害, 流血盈室. 老僧入見, 驚問兩人曰: “此何事也?” 兩人曰: “吾輩雖服事此人, 盡其劬術, 同來八人, 義同兄弟. 今皆爲其所殺, 今只餘兩人, 此大讐也. 其可暫時忘耶. 久欲除之, 而顧無可乘之隙, 今幸得間, 何爲不殺?” 老僧大噴曰: “吾輩既受再生之恩, 盟爲師弟. 恩義既深, 情同父子, 豈可復論仇怨, 作此事耶?” 痛哭頓仆, 遂前刺兩人, 皆殺之(신돈본, 「왜첩」)

49) 後十年, 嘗出游, 其人類而結扉係, 一倭忽乘後拔劍, 斷其頭. 顧老僧曰: “夫匪吾讐乎? 今日得反之矣. 吾二人盍間行反諸日本.” 老僧目見師遇害, 狠發劍, 亦立斷其倭頭. 噫! 老僧與其倭, 俱倭耳. 同師數十年, 不知其日夜內懷陰賊心也.(신광수, 「검승전」)

도 같은 8인의 왜인 무사를 검사가 죽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승은 검사와 맺은 사제 관계를 부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재생(再生)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동료였던 왜인을 죽인다.⁵⁰⁾ ② 「검승전」에서도 검왜(劍倭)는 조선 검사를 원수라 한다. 이에 앞서 조선 검사는 검왜는 오랑캐로 자신에게 원수지만 오랑캐도 인간이기에 모두 죽일 수 없다며⁵¹⁾ 검왜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왜의 은원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왜는 조선 검사를 죽이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다. 결국 조선 검사의 휴머니즘은 검왜에게 부정당했고 조선 검사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조선 검사의 휴머니즘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 조선 검사가 제자로 맞이한 노승은 고국인 일본의 신민(臣民)으로 복귀하기보다 조선 검사와 맺은 사제의 관계를 더 가치있다 생각하였다. 조선 검사의 휴머니즘은 검왜에게 부정당했지만 노승에게는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승은 스승을 배신한 검왜에게 다시 복수한다. 이처럼 복수의 연쇄는 검협서사의 사건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며 비극적 결말을 가져 오기는 하나 은혜와 의리를 중요한 가치로 놓게 만들어준다. 스승의 복수 이후 「왜첩」에서의 노승은 금강산의 암자에 올라 중이 되는 것으로 간단히 설정되어 있는 반면, 「검승전」에서 노승은 「왜첩」에서보다 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노승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하며 동해에 뛰어 들어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오대산에 올라 중이 된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리와 스승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노승의 면모가 「검승전」에 더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검객은 훗날 재상의 수하에 들어가 총애를 받았다. 하루는 재상이 집무실에 앉아 공무를 보고 있는데, 노승 한 사람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더니 계단을 올라 재상을 찔러 죽이려 했다.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검객이 그 자리에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함성을 지르며 품속에서 검을 꺼내 노승을 베어 죽였다. 노승은 바로 검객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의 아들이었다. 검객은 재상에게 말했다. “열흘 뒤에 승려 하나가 또 올 겁니다.” 열흘 뒤에 과연 승려가 와서 검객을 찾았다. “죽은 승려는 내 제자다. 나와 검술로 겨뤄 보겠느냐?” “좋다!” 검술 대결이 벌어

50) 노승이 검왜에게 말한 ‘재생의 은혜(再生之恩)’는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말할 때 늘 상 언급하는 ‘제조지은(再造之恩)’을 상기시킨다.

51) 若雖夷而讐我，亦人已。吾不忍盡之矣。(신광수, 「검승전」)

졌다. 검이 부딪칠 때마다 눈서리 같은 빛이 공중에 보였고 두 개의 푸른색 옹이가 위아래로 오르내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피가 서너 점 땅에 떨어졌다. 검객은 천천히 내려와 휘파람을 크게 불며 말했다. “승려는 죽었습니다. 검술에는 열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승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역시 훌륭한 검술이었습니다.”⁵²⁾

『검객모소전』에서는 대를 이어 복수가 교환되면서 서사가 지속된다. 검객이 어릴 적 아버지는 영호남을 드나들며 장사하던 상인으로 살해당하게 된다. 마침 훗날 재상이 되는 그 고을의 현령이 범인을 잡아 죽인다. 고을 현령이 검객의 복수를 대신 해준 것이다. 이는 검객에게 은혜가 된다. 검객은 재상이 된 옛 고을의 현령 근처에 머물며 재상을 보호한다. 검객의 아버지를 죽인 자의 아들이 승려가 되어 재상을 죽이려 하자 검객이 이를 막는다. 검객의 입장에서는 대신 복수해준 재상에게 은혜를 갚은 일이 되지만, 살인자의 아들에게는 재상이 원수가 된다. 다시 검객은 노승의 죽음으로 그 동료에게 검객은 원수가 되고 둘은 결전을 벌인다. 이러한 복수의 연쇄와 반복은 비록 간결하게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서사를 지속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점은 『이장군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장군이 부녀자를 희롱한 악승을 죽이자, 그의 동료 중이 나서서 이장군에게 복수를 선언하는 한편 이장군과 중의 대결이 박진감 넘치게 재현되는 것이다.

우리 삼장사는	曰我三壯士,
각기 사방으로 떠도는 사람인데	各自四方人.
마음을 모아 의형제가 되어	結心爲弟兄,
검술을 배우러 연경燕京 지역에 들어갔고	學劍入燕京.
구름처럼 팔방으로 멀리 놀아	雲遊至八荒,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서했지요.	生死與同誓.
막내아우 남방에서 살해당해	阿季歿于南,

52) 後託身宰相常見幸。一日，宰相坐府中視事，忽一老僧直入上階，將刺殺宰相。左右大亂。客立視，乃大呼，出懷中劍，擊殺之。乃故是仇家子也。謂宰相曰：“後十日，當有又一僧來。”後果來，呼劍客曰：“死僧吾弟子，可與吾劍戰否？”曰：“可！”乃劍戰。劍相摩，若霜雪光，見空中，有兩青甕相爲低仰。居有間，血三四點墮于地。徐下大囁曰：“僧斃矣。劍有十二術，其一術，僧不知也。然善劍也。”(유한준, 『검객모소전』)

십년이 되도록 원수를 갚지 못했거늘	十年未報仇.
원수는 해상海商으로 노는 자인데	仇人卽海賈.
마침 전주 와서 자는 줄 알고	今日宿全州.
밤에 전주성내로 들어가서	夜入全州城.
그놈을 죽이고 방금 돌아온 길이라오.	殺之今始還.
피 묻은 머리 앞에 놓고	髑髏血模糊.
막내의 혼령에 곡하며 제사를 지냈지요.	哭祭阿季魂. ⁵³⁾

『부여호사가』와 『오대검협전』은 같은 이야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호사가』에서 의형제 삼장사 중 막내를 죽인 자는 해상(海商)이었다. 황관소년과 청과일사는 전주에 들렀다는 원수를 찾아가 복수한다. 『오대검협전』에서는 검협과 그의 친구가 같은 문하생의 복수를 감행한다. 검협서사가 복수의 서사로 중심 사건을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검녀』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내적 동인 역시 복수이다.

저는 아무 집의 노비였어요. 마침 주인댁 아씨와 같은 해에 태어났기에 주인댁에 서는 특별히 아씨의 몸종이 되게 했고, 훗날 아씨가 시집갈 때 교전비로 삼으려 하셨지요. 그런데 제 나이 겨우 아홉 살 때 주인댁은 세도가에게 멸망당해 토지를 모두 빼앗겼어요. 아씨와 유모만이 살아남아 타향으로 달아나 숨었는데 노비로서 따라간 건 오직 저 하나뿐이었어요. 아씨는 열 살을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함께 먼 곳으로 떠나 검술 스승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2년을 찾아다녀서야 비로소 스승을 얻었어요. 검술을 배운 지 5년이 되니 공중에 몸을 날린 채 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큰 도시에서 검술 묘기를 선보인 대가로 몇 천 냥을 벌여 보금 내 자루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원수 집으로 가서 검술 채주를 보여 주는 체하며 달빛 아래 검무를 추다가 검을 날려 찌르니 순식간에 수십 명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원수 집의 안팎 사람들이 모두 붉은 피로 물든 채 죽었어요.⁵⁴⁾

53) 김재찬, 『부여호사가』, 번역은 임형택, 앞의 책, 2013, 457~465면 참고.

54) 身是某氏之婢也。而適與主家娘子同歲而生，故主家特與娘子而爲使，使爲將來嫁時轉前婢。年僅九歲，而主家爲勢家所滅，田園盡爲所奪，而只餘娘子與乳姆。逃匿他鄉，隸而從者，唯此一身耳。娘子纔踰十歲，而與賤身謀爲男裝，而遠遊求劍師。經二年始得之，學舞劍，五年始能空飛往來，嚮技於名都會，得累千金，以買四寶劍，乃之讎家，爲將嚮技者，而乘月舞之，飛劍所割，頃刻數十頭，而讎家內外，皆已赫然血斃矣。(안석경, 『검녀』)

검녀의 주인댁은 멸문지화를 입는다. 주인댁을 명망시킨 세도가에 대한 복수의 의지는 아씨와 검녀로 하여금 생의 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남장하고 숨어 다니다 검술을 배웠고 이렇게 습득한 검술로 묘기를 부려 돈을 번다. 돈을 번 목적은 보검을 사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아씨와 함께 멸문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복수는 죽음이고 멸문에 대한 복수는 멸문이다. 비례의 원칙은 복수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 아씨는 복수의 완수 이후에 자살한다. 앞서 서술한 ‘강상효녀담’에서도 복수를 완수한 여첩들의 마지막을 자결로 마무리 하는 작품이 대다수이다. 반면 「검녀」에서는 두 명의 여인 중 한 명을 노비로 설정하고 복수를 마무리한 후 주인이 노주(奴主) 관계의 소멸을 선언하게 함으로써, 검녀를 아씨의 가문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였다. 한편 작자 자신과는 당색이 다른 소옹천이라는 인물을 끌어들이므로써 풍간(諷諫)의 의미를 덧붙였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⁵⁵⁾

이상 살펴본 것처럼 검협서사는 복수의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의 서사는 왜 18세기 중후반이라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는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청취하여 이를 서사로 정착시킨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공유된 모종의 지향이 감지된다.

검협서사에서 복수가 강조되는 이유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복수 의지가 만연했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란이 연달아 발생하였고 더불어 명·청 교제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청나라에 대한 국가적 복수설치의 필요성은 18세기 중엽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과제였다. 한편 계속된 전란으로 인해 약화된 국가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공업의 발전으로 축적된 부는 사회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급변의 시기 개인의 억울함이 공적 질서를 통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개인들은 공적 제도에 의지하기보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검협서사가 유독 이 시기에 다수 보이는 이유는 이상의 조선의 대내외적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문단편은 ‘실사와 허구의 사이’에 존재하는 소

55) ‘강상효녀담’에서 여첩의 사정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람들 작자와 다른 당색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점은 서사의식과 연관된다.

설이다. 앞서 언급된 검협서사는 소설화 경향이 강한 단형 서사체들이었다. 일종의 허구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사는 어떠한 것일까. 이는 18세기 중후반 정조의 통치 행위와 그 결과로 형성된 조선후기 사회적 분위기로 약간의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조 때에는 임금의 직접 심리를 하여 판결을 내린 기록인 『심리록(審理錄)』이 전한다.⁵⁶⁾ 각 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집적된 『심리록』에는 당시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사건과 그 처벌의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은애(金銀愛) 사건은 이덕무의 『은애전(銀愛傳)』을 통해 학계에 많이 알려진 바 있다. 이덕무가 『은애전』 서두에 적은 바와 같이 그가 『은애전』을 집필하게 된 것은 정조의 명 때문이었다.⁵⁷⁾ 하지만 『은애전』에는 김은애 사건만 서술된 것이 아니라 신여척(申汝倬) 사건도 서술되어 있다. 김은애는 정절을 모해한 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고⁵⁸⁾ 신여척은 형제간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형을 살해하게 된 살인범이었다.⁵⁹⁾ 정조는 살인범인 김은애와 신여척에게 살인의 죄목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정조는 김은애와 신여척의 기개와 지조를 높여주고 방면한다. 김은애는 섭정(攝政)의 누이에 버금갈만한 유희(遊俠)이라 칭하고 신여척은 우애 없는 자를 다스렸다며 추켜세운다. 이러한 정조의 판례는 근대적 사법 체계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김은애와 신여척의 윤리와 기절(氣節)을 강조하며 이것이 풍속과 교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정조의 주문(主文)은 이

56) 『심리록』에 대한 연구는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 <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참고.

57) 이덕무, 『은애전(銀愛傳)』, 『청장관전서』 제20권, 『아정유고』 12. 이덕무의 『은애전』에는 은애와 관련된 사정이 기록되어 바로 신여척의 사정도 덧붙여 있다. 김은애의 사정만 알려졌다나, 『은애전』에는 김은애와 신여척의 사정이 함께 실려있다. 이덕무가 김은애와 신여척의 전을 짓게 된 것은 정조의 명을 받은 것이고 저간의 사정을 『내각일력(內閣日曆)』에 실기 위함이라는 실용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정조는 김은애와 신여척의 옥안(獄案)을 심리한 후 판결문을 쓰기 위해 이덕무에게 입전을 명한 것이다. 『은애전』에 은애가 노파를 살해하는 정황이 소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된 것은 작자가 김안 결과를 참고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은애전』에 대한 연구로는 정인혁, 「<은애전>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동악어문학』 제62집, 동악어문학회, 2014; 최천집, 「<은애전>의 창작의도 고찰」, 『어문학』 제131집, 한국어문학회, 2016 등 다수가 있다.

58)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1790) 8월 10일 무오 2번째 기사; 『심리록』 제21권, 경술년(1790) 전라도.

59)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1790) 8월 10일 무오 3번째 기사; 『심리록』 제21권, 경술년(1790) 전라도.

시대가 복수에 관대하였음을, 즉 의리에 합당한 복수라면 용서를 받고 심지어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백성을 윤리적으로 교화하려는 목적이 인간의 목숨보다 우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의리에만 합당하다면 복수를 권하는 사회라고까지 이를만하다.

신여척의 주문에는 유명한 ‘전기수(傳奇叟) 살인 사건’으로 시작하여 맹랑한 살인 사건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뒤이어 신여척을 주도추(朱桃椎)나 양각애(羊角哀)와 같은 부류라 칭찬한다.⁶⁰⁾ 김은애에 대해서 섭정(攝政)의 누이에 버금갈만한 유협(遊俠)이라 칭하며 사마천이라면 유협 전에 실었을 것이라 말한다. 김은애 사건과 신여척 사건은 하나의 판례가 되어 다른 사건의 심리에도 영향을 끼친다.

김은애 사건, 신여척 사건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김계손 사건이다. 김계손(金啓孫) 형제는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를 끝까지 추적하여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았다. 김계손과 김성손(金聖孫) 형제는 충청도 니성(尼城: 지금의 충남 논산시 노성면) 사람인데, 이들 형제의 아버지는 김수리봉(金水里奉)에게 채여 죽음을 당하였다. 김계손 형제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각자의 몸에 감추고 원수인 김수리봉을 1년 동안 추적했다. 결국 이들은 김수리봉이 옥에서 풀려날 때를 노려, ‘형은 칼로 베고 동생은 찔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아버지의 복수에 성공한 형제는 곧장 관부에 자수하였다. 정조는 이들 형제를 방면하는 한편 판결문을 베껴주어 원적이 있는 전주목에 교부하는 한편, 도백에게는 이들을 인재라며 특별 채용하라 명하고 있다.⁶¹⁾ 『심리록』에서 정조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처리하는 군주였지만 김은애, 신여척, 김계손 사건과 같이 윤리와 기절(氣節)을 내세울 만한 인물들의 복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특히 김계손 사건에 있어서 정조의 주문은 윤리와 기절을 이유로 복수 권하는 사회에서 검협서사의 작자들이 의리와 복수의 서사를 써내려간 것은 어찌 보

60) 주도추는 당나라의 은자(隱者)이고 양각애는 전국시대 초나라의 열사이다. 주도추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산속에 암자를 짓고 헐벗고 살았다. 좌백도(左伯桃)는 양각애와 함께 초나라를 찾아가다 양식이 떨어지자 자신의 옷과 양식을 양각애에게 모두 주고 자신은 나무 속에서 죽었다. 좌백도의 희생으로 초나라에 간 양각애는 초나라의 상대부가 되었다. 훗날 양각애는 좌백도의 제사를 지내주고 자결한다.

61)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1791) 9월 20일 임진 4번째 기사; 『심리록』 제23권, 신해년(1791) 충청도.

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 검사는 두 왜인과 10여 년을 같이 지냈으니 이들의 심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적ियो, 하나는 아들이거늘 둘 다 자기 옆에 가까이 두었다가 마침내 자기가 가르쳐 준 기술로 적에게 해침을 당했다. 명철보신에는 밝았으나 사람이 알아보는 데는 어두웠다 하겠다. 그야말로 ‘단표는 안을 길렀으나 밖에서 범이 잡아먹었다⁶²⁾는 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맹자는 ‘예(羿) 또한 죄가 있다⁶³⁾고 말했던 것이다. 저 오대산의 노승은 왜인이지만 기남자라고 할 것이다.⁶⁴⁾

㉡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가슴속에 도(道)를 품고 조용히 지내며 때를 기다려야 했을 터인데, 애석하다, 결국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죽었을 테니.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들 중에 소년과 비슷한 사람이 어찌 적겠는가? 문왕이 있었기에 강태공이 존재했던 것이요, 소열이 있었기에 제갈공명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문왕과 소열 같은 분이 없는데 ‘세상에 강태공과 제갈공명이 없다!’라고 한탄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망령된 자가 아니겠는가!⁶⁵⁾

㉢ 아아! 이 여자는 노비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몸을 중히 여겨 평범한 남자에게 제 몸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박식한 학자와 기이한 선비라면 더더욱 자기가 누구를 추종할 것인지 잘 가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건만 공부는 진승을 추종하고, 포영은 유현을 추종했으니, 대체 무슨 마음에서였을까.⁶⁶⁾

62) 『장자』 외편 『달생』의 구절로 원문은 “豹養其內, 而虎食其外”이다. 단표가 장생불사를 위해 속세로부터 떨어진 산속에서 양생하며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속에서 떨어진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63) 『맹자』 『이루』하 24의 구절로 원문은 “是亦羿有罪焉”이다. 방몽(逢蒙)은 예(羿)에게 활을 배웠는데, 자신의 스승인 예말고는 자신을 능가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예를 죽인다. 제자에게 죽임을 당한 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이다.

64) 然劍師與二倭處十數年, 亦可以知心術矣. 一爲賊, 一爲子, 而肘腋之, 卒以其道授賊自戕. 明於保身, 闇於知人. 殆所謂單豹養內, 虎食其外’者邪. 故孟子曰: ‘羿亦有罪焉.’ 抑五臺老僧, 夷狄而奇男子也夫.(신광수, 『검승전』)

65) 若是者, 眞可謂潛居抱道, 以待時者也. 惜乎! 其無所遇而死也, 巖穴之士, 若此等比, 豈其少哉? 有文王然後有太公, 有昭烈然後有諸葛. 無文王·昭烈, 而謂世無太公·諸葛’者, 其亦妄人也夫!(홍대용, 『보령소년사』)

66) 嗟呼! 女子之爲人隸, 而尙能自珍其身, 不忍輕委於凡夫. 況於鴻儒奇士, 而不擇所從! 如孔鮒之於陣陟·鮑永之於劉玄, 獨何意哉?(안석경, 『검녀』)

①은 「검승전」, ②는 「보령소년사」, ③은 「검녀」의 말미 논찬부이다. ①에서 신광수는 조선 검사가 협객이자 은자로 뛰어난 검술 실력을 지녔음에도 제자로 삼은 왜인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 논하고 있다. 뛰어난 검술 실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던 제자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지력과 용맹을 갖추고도 화를 면치 못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었기에 명철보신(明哲保身)을 위해 은거하였지만 결국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어두워 화를 입었다는 것이다. 깊은 숲에서 양생술을 일삼던 단표(單豹)가 정작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아이러니와 예(羿)가 제자인 방몽(逢蒙)에게 죽은 일을 들며 조선 검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검승에 대한 신광수의 논찬에서 중요한 문제는 ‘지감(知鑑)이다. 전통서사에서 지감의 문제는 ‘불우(不遇)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감의 부재는 불우의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령소년사」에서 제기한 홍대용의 문제의식은 도발적이다. 검협서사에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지만 서사적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②에서, 홍대용은 강태공이나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들의 부재, 즉 인재의 부족을 탓하는 세태를 도리어 비판하고 있다. 초야에 선비는 많으나, 이들을 알아보고 등용할 수 있는 문왕과 소열이 없는 현실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홍대용의 비판은 궁극적으로 지인지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군주에게 향하게 있다. 소년 검객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군주를 비판하는 홍대용의 한 줄은 뼈를 때리는 혹독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⁶⁷⁾

③에서 안석경은, 노비 출신의 검녀조차도 평범한 선비를 추종하지 않는데 이른바 홍유기사(鴻儒奇士)들이 추종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공부(孔鮒)는 진나라 말기의 유학자로, 농민반란을 일으켰던 진섭(陣涉)에게 태부(太傅)라는 벼슬을 받았고, 포영(鮑永)은 왕망(王莽)을 반대하여 기병해 황제를 참칭했던 유현(劉玄)을 도와 벼슬을 한 적이 있었다. 안석경은 공부와 포영의 출처를 비판하며, 출처 문제에 둔감한 당대의 사대부를 함께 비판하고 있다. 안석경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로 청나라에 대한 북벌을 주장하였으며 청나라의 연호를 쓰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 평생을 은거

67) 김계손 사건에 대해 정조가 문명(文明)한 호남에 인제가 없으리 없으니 김계손과 같은 자를 등용하라는 주문을 남긴 것은, 홍대용의 비판에 대한 군주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문인이었다.⁶⁸⁾ 홍대용의 군주의 지감을 문제 삼았다면, 안석경은 당시 사대 부들의 지감을 문제 삼고 있다. 검협서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지감의 문제는 당대 문인 지식층의 사회적 비판 의식과 연결된다.

① 의사씨는 논평한다. 검사는 협객으로서 은자일 것이다. 임진왜란을 당해 초야의 용맹한 사람으로 홍계남, 김응서 같은 인물들은 떨치고 일어서 적을 막아 싸워서 큰 공을 수립했다. 이 검사의 경우 숨어서 나오지 않고 공명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일까? 그는 경이로운 기술을 지녔으며 임진의 변란은 실로 천수다, 구구한 인력으로 종식시킬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⁶⁹⁾

② 오대산의 검협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 검술로 보아서는 그 또한 도를 지닌 자일 것이다. 검협은 ‘재주는 하늘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니, 반드시 하늘의 힘을 빌려야만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거늘, 살인은 흉한 일이지만 반드시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할 수 있으며, 하늘을 모르는 자는 살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꺼운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있으니, 그런 자는 참으로 오대산의 검협 앞에 죄인이 아니겠는가? 아아, 개탄스럽다!⁷⁰⁾

③ 효종 때는 대의를 부르짖으며 북벌을 꾀하였기에 용사를 구하는 데 목말라 했으니, 만일 한번 장군의 명성을 듣고 중용했다면 어찌 고문의 역할에 그쳤겠는가? 장군은 변방의 군막에서 생을 마쳤으니 설사 남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세 번이나 그 용맹을 본 평안감사야 어찌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알면서도 그 사람을 쓰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한 것과 같다. 장군이 쓰였다면 틀림없이 북벌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요, 북벌에 나섰다면 오랑캐는 남김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하늘이 바야흐로 오랑캐로 하여금 중국에 이르게 한 것이 이백 년 되었으니 어찌 장군을 등용하여 오랑캐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였겠는가? 그러나 무모한 중을 죽이고 민폐를 없앴으니, 아아, 장군은 또한 쓰였다고 이를 만하다.⁷¹⁾

68) 강혜규, 앞의 논문, 459면 참고.

69) 外史氏曰: 劍師俠而隱者乎. 當壬辰之難, 草莽勇, 如洪季男·金應瑞輩, 多奮起捍賊, 立奇功. 劍師伏而弗出, 不欲以功名自顯, 何哉? 彼有異術, 誠知壬辰之變, 天數也, 非區區智力可弭.(신광수, 『검승전』)

70) 五臺劍俠者, 余不知其何人, 然視乎其術, 蓋亦有道者也. 其言曰: ‘術不能天, 必假天.’ 夫殺人, 凶事也, 而必假天, 不知天者, 殺人亦不可得爲也. 世固有無事而甘心殺人者, 良非斯人之罪人歟! 嗚乎悲夫!(김조순, 『오대검협전』)

①은 「검승전」, ②는 「오대검협전」, ③은 「이장군전」의 말미 논찬부이다. ①에서 신광수는 임진왜란을 천수(天數), 즉 천명(天命)의 문제와 연관 짓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은 문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②에서 김조순도 술법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는 검협의 말을 빌려 흉악한 살인이라도 천명을 가탁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말한다. 물론 김조순이 개탄한 것은, 일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달게 여기는 무뢰배들이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허나 살인도 천명이 따라주어야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김조순 역시 공감하고 있는 바라 할 수 있다. ③에서 천명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안중은 효종 때 대의를 부르짖으며 북벌[北學]을 주장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북벌을 위해서는 이장군과 같은 검협을 등용하지 않았던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이장군의 용력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평안감과 같은 인물이 이장군을 등용하였더라면 ‘오랑캐’를 일소하여 북벌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문세를 전환하여 청나라가 2백년이 지난 당시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천명 때문이라는 진술을 덧붙인다. 여기에는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도록 만든 것은 천명이었기에 이장군과 같은 검협을 등용했다 하더라도 운수를 뒤집을 수 없었다는 회의감이 반영되어 있다. 오랑캐의 운수가 백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이른바 ‘호불백년(胡不百年)’의 논리는 이안중의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검협서사의 가치 지향은 의리와 복수에 있다. 「왜첩」에서 노승은 자신과 검왜가 검협에게 ‘재생의 은혜(再生之恩)’를 입었다 말한 바 있다. 「왜첩」의 서사를 하나의 은유 체계로 본다면 검협은 명나라요, 노승은 조선, 검왜는 후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왜가 검협을 살해한 것은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킨 것이요, 노승이 검왜를 죽인 것은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갚기 위해 조선이 북벌을 완수하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벌의 포기로 귀결되었고 청나라는 저물지 않는 태양처럼 제국으로 강건했던 것이다. 검협서사 속에는 강개한 검협들의 의리와 복수의 서사가 있었지만 현

71) 方孝廟奮大義，謀北學，求壯士如渴，使一聞之，其尊用之，豈顧問哉？然將軍卒死於幕府。人縱不知，刺史三試其勇，獨曰不知耶？知而不學，猶不知也。然將軍用，必能北學，北學，胡無類矣。天方令胡莅中國，爲二百年主，豈肯用將軍，使無類乎？然能戮無道僧，除民害，嗚呼，將軍亦可謂用哉！（이안중, 「이장군전」）

실은 복수설치(復讐雪恥)가 불가능해져버린 천명이 지배하는 세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검협서사의 서사구성과 그 특징을 살피기 위해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하였다. 작품들을 조사해본 결과 검협서사라 지칭할 수 있는 작품들은 대개 18세기 후반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만으로 얻을 수 있는 바가 아니라 검협서사를 일련의 작품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여항에 떠돌던 검협 이야기는 18세기 후반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검협서사로 정착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검협서사 작품들을 그 내용에 따라 노승 검협, 소년 검협, 장군 검협, 여성 검협으로 분류하였다. 검협서사가 창작되었던 때에는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유형의 이야기들이 문인 지식인층에게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협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작품의 작가와 명칭이 제각각이기에 개별 작품만으로 이들의 연관이 파악되기 어렵지만, 유사성을 보이는 작품들을 묶어 준 결과 검협서사의 각 편들은 서로 화소를 공유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를 검협서사를 다른 서사들과 구별 짓는 서사 형식으로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검협서사의 서사 형식은 ‘검술 보이기’와 ‘검술 겨루기’로 확인된다. 아울러 이들 서사는 검술을 매개로 한 사승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검협서사의 주요 갈등이 제시될 수 있다. 주인, 스승, 아버지, 친구 등의 ‘원수에게 복수하기’가 그러하다. 주인, 스승, 아버지, 친구 등의 관계는 모두 오륜(五倫), 강상(綱常)의 사회적 위계질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검협서사가 보여주는 의리와 복수는 왕의 통치 이념과 관련된 것으로 당대의 문인 지식인층의 정치·사회적 지향과도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검협서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조의 통치 행위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참조해야 이해될 수 있다.

검협서사는 복수의 연쇄와 반복을 통해 서사가 진행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검협서사는 검과 복수의 서사라 칭할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 낡아버린 기술에 대해 관심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당대 문인들의 호기(好奇) 취향도 확인된다. 검술은 본래 생존과 전쟁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총포가 확산되던 시기에 검술은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술에 대한 관심이 18세기 후반에 두드러진다는 점은 이 시기 문인 지식층의 호기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협서사에서 이야기를 교직하는 방법은 현재의 우리들도 배울 만한 지점이 많다. 한문단편 가운데에서도 소설적 경사가 크게 진행된 작품들이 검협서사인만큼 소설의 창작방법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고전 서사의 이러한 창작방법은 고전 서사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를 넘어 보편적 관점에서 현대적 서사의 창작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우리 검협서사가 중국소설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처리하였는데 이점은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 근거를 들며 단단하게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1.
 ———,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태학사, 2009.
 이가원 교주, 『李朝漢文小說選』, 광성문화사, 1978.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1~4, 창비, 2018.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 『이조시대서사시』 2, 창비, 2013.

2. 논문

- 강혜규, 『靑橋 安錫徹의 散文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08면.
 ———, 『靑橋 安錫徹의 <劍女> 研究-女俠敍事 傳統의 繼承과 變容』, 『韓國漢文學研究』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445~475면.
 김경희, 『「김승진(劍僧傳)」에 나타난 인물 관계의 다문화적 고찰』, 『다문화와 평화』 제8호 3권,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21~43면.
 ———, 『「오대검협전(五臺劍俠傳)」에 나타난 김조순(金祖淳)의 문제의식 고찰』, 『東方學』 제34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6, 175~206면.
 김근태, 『朝鮮後期 人物傳과 敍述方式의 變異樣相 試論』, 『崇實語文』 제7집, 송실어문학회, 1990, 99~112면.
 김명호, 『박지원의 금강산 유람과 창작』, 『한국문화』 제76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51~78면.
 김수영, 『체제 밖으로 나가기와 체제 속으로 들어오기』, 『제37차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김수영, 『〈角觥少年傳〉의 敍事 淵源과 주제의식』, 『古典文學研究』 제4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343~381면.
 김승호, 『李安中の 散文에 나타난 小說化 傾向』, 『語文研究』 제3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175~200면.
 김영진,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大東漢文學』 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5~44면.
 김하라, 『유만주의 「수호전」 독법』,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391~435면.

- _____, 『유만주가 만난 이안중-1786년 9월 남산의 문학청년들-』, 『한국한문학연구』 제69집, 한국한문학회, 2018, 73~113면.
- 서신혜, 『고전 서사 속 降倭의 형상화 양상에 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제37집, 동양고전학회, 2018, 161~188면.
- _____, 『17세기 전쟁서사의 소설사적 특성과 의의』, 『東方學』 제30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7~31면.
- 손혜리, 『18세기 서사양식의 교섭양상에 대하여 - '강상효녀'를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0집, 한국한문학회, 2007, 425~444면.
- 안순태, 『〈劍客薛生傳〉 연구-〈劍客記聞〉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29집, 국문학회, 2014, 91~119면.
- 이경미, 『朝鮮後期 漢文小說 『劍女』를 통해 본 韓·中 女俠의 세계』, 『石堂論叢』 제40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8, 185~216면.
- 정인혁, 『〈劍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97~225면.
- _____, 『〈은애전〉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동악어문학』 제62집, 동악어문학회, 2014, 227~262면.
- _____,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의 극복과 “교양”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3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29~60면.
- 정하영, 『〈劍僧傳〉의 人物型和 갈등 양상』, 『古典文學研究』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93~123면.
- _____, 『전쟁포로의 소설적 형상화 - 〈劍僧傳〉』, 『탈경계 인문학』 제4권 3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1, 5~33면.
- 최천집, 『〈은애전〉의 창작의도 고찰』, 『어문학』 제131집, 한국어문학회, 2016, 157~188면.
- 허인옥, 『‘劍仙’ 金光澤 연구』, 『무예연구』 제2권 2호, 한국무예학회, 2008, 1~15면.

A Study on the Narrative of Sword Masters in late Joseon Dynasty

Kim, Yu-jin

In the late 18th century's Joseon Dynasty, the story of the Sword Masters in ordinary people was accepted by literati and settled as the narrative of the Sword Master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se narratives, their characters could be categorized as an old monk, young people, a general, and a swordswoman. There are two types of narrative forms that distinguish other short stories are 'showing swordsmanship' and 'fighting by swords'. These narratives' presuppositions are based on swordsmanship carried by the master of swords. The major conflicts of these narratives are spread through the sequences and repetitions of vengeance. These narratives can be called the stories of swordsmanship and revenge. Conclusionally the reason why the late 18th century's the narrative of sword masters could be popular can be understood by associating it with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and governance of Jungjo.

keywords: a swordsman, swordsmanship, the narrative of sword master, vengeance, northern expedition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2018. 11. 10. 게재결정: 2018. 11. 10.
